

해외의약뉴스

비타민D의 부족은 침습성 진행형 전립선암과 연관이 있다.

의약품정책연구소

개요

비타민D가 부족할수록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. 미국 시카고의 40-79세 사이의 전립선암 조직검사를 받은 667명의 남성의 비타민D 수치를 체크한 결과 양성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비타민D의 수치가 아주 낮은 사람(12ng/ml 이하)들은 정상 수치의 사람들에 비해 침습성이고 진행형인 암에 걸릴 확률이 더 컸으며, 특히 비타민D의 수치가 12ng/ml 이하인 흑인 남성은 정상 수치의 남성에게 비해 전립선암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.

키워드

비타민D, 전립선암

비타민D가 부족한 남성일수록 더 침습성이고 진행형인 전립선암의 사례와 관련이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. 비타민D가 부족한 흑인남성의 경우 정상 수치의 남성에게 비해 전립선암 조직검사에서도 양성반응 결과가 더 많이 나왔다고 보고되었다.

5월 1일자 Clinical Cancer Research에 게재된 이 연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는 못했지만, 비타민D가 전립선암의 시작과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.

Len Lichtenfeld 박사¹⁾는 “비타민D와 전립선암의 관련성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해결되어야 한다.”고 말했다. 박사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았다. 박사는 “비타민D가 암의 발생 또는 시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암이 진행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한다.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.”고 말했다.

비타민D는 세포의 생성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연구 저자인 Adam Murphy 박사²⁾는 “비타민D는 세포가 줄기세포에서 성체세포로 변화될 때 세포의 정상적인 분화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. 그리고 비타민D는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성장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.”고 말했다.

비타민D는 피부가 태양에 노출되었을 때 생성되어 ‘태양 비타민’이라고 불린다. 비타민D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으며, 비타민D의 부족은 햇빛이 적은 계절과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, 어두운 피부는

1) 미국 암학회(American Cancer Society) 부원장

2)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비교기과 조교수

햇빛을 차단하므로 비타민D의 부족은 피부가 어두운 사람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.

비타민이 암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Murphy 박사는 “비타민D를 전립선 세포 배양접시에 첨가하면 성장속도가 느려진다.”고 말했다. 그 개념은 비타민D와 같이 신체에서 필수적인 비타민이 너무 적으면 세포성장이 잘못되어 암을 초래한다는 것이다.

이러한 개념을 실험하기 위해 연구진들은 미국 시카고의 40-79세 사이의 전립선암 조직검사를 받은 667명의 남성의 비타민D 수치를 체크했다. 이들은 최근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결과가 비정상적이거나 의사들이 검진 중 전립선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다.

정상적인 비타민D의 수치는 30-80ng/ml이다. 검사를 받은 남성들 중에는 비타민D의 결핍 또는 20ng/ml 이하의 수치가 많았다. 전립선암 조직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44%의 남성과 음성반응이 나온 남성의 38%가 비타민D의 수치가 낮았다.

검사 후 전립선암에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들 중 비타민D의 수치가 아주 낮은 사람(12ng/ml 이하)들은 정상 수치의 사람들에 비해 더 침습적이고 진행적인 암에 대한 확률이 높았다.

흑인 남성의 경우 비타민D와 암의 연관성은 더욱 높은 것으로 보였다. 비타민D의 수치가 12ng/ml 이하인 흑인 남성은 정상 수치의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.

일반적으로 흑인 남성이 전립선암을 더 많이 진단 받는다.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남성이 전립선암에 걸릴 평생위험도는 1/7이지만 흑인남성은 1/5로 증가된다.

연구진들은 비타민D의 결핍이 흑인 남성에서의 전립선암 발생에 대한 설명을 돕는다고 확신하지는 못했다. 연구진들은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.

■ 원문정보 ■

http://www.nlm.nih.gov/medlineplus/news/fullstory_145999.html